



해외보험리포트

이탈리아편

김혜란, 김가현

Executive Summary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8위 국가로 풍부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해 유럽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임. 또한 명품 수출 1위 국가로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 지역 내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성장률(-9%)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새롭게 구성된 마리오 Дра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함. 코로나 회복 기금을 활용해 녹색산업, 디지털, 보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며 경제회복세로 전환하였음

이탈리아는 2013년부터 보험감독원(Institute for Insurance Supervision; IVASS)이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IVASS의 관심분야는 이탈리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로 2021년 기획재정부는 IVASS,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Italian Compan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sob)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이탈리아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8.0%이고 보험 밀도는 약 2,716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28%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임. 이탈리아 보험산업에서 외국 보험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손보 모두 40% 이상임. 생명보험산업은 2022년 순보험료 및 투자 이익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우체국 소유인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신보험 등의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산업은 자동차책임보험료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4.5% 확대되어 실질 GDP 성장률(3.7%)를 상회하였으며, 세후 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대형그룹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임. 대리점 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채널이며,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

-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8위 국가로 관광 산업 발달로 인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임¹⁾
 - 2023년 이탈리아의 GDP는 약 2조 1,800억 미국 달러 규모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²⁾ 2022년 기준 세계 9위의 수출 국가임
 - 2022년 전쟁,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였으나 관광 중심의 서비스 무역은 호조를 보이며 전체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재와 정밀 산업 위주의 수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022년 총 교역량은 1조 3,561억 미국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함
 - 풍부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해 유럽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꼽힘
 -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수산업이 2.2%, 제조업이 23.8%, 서비스업이 74%를 차지함
 - 제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총매출은 8,700억 유로에 달하며,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나타남
 - 기계 및 로봇 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수출의 약 2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32억 유로로 세계 3위의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명품 수출 1위 국가로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브랜드의 글로벌화로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수입보다 수출이 강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패션 산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Made in Italy'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인구는 약 5,890만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23.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 중 하나임

1) KOTRA(2023), 국가지역정보-이탈리아

2) IMF(2023.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3"

- 2022년 인구는 전년 대비 17만 9,000명 감소했으며, 젊은 인구의 이민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³⁾
 -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었으며, 출생아 수는 이탈리아 통일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미만으로 나타나 최저치를 기록함
 - 2021년 기준 25~29세 대학 졸업생의 국외 이주율은 남성 1,000명당 9.5명, 여성은 1,000명당 6.7명으로 전체 평균 이주율인 1,000명당 2.2명보다 높은 수준임

〈표 1〉 이탈리아 주요 국가 지표¹⁾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30만km ² (한반도의 1.4배)	인구	약 5,894만 명
생산가능인구	약 3,744만 명	고령화 비율	24%
소비자물가상승률	8.2%	경제성장률	3.7%
GDP	2조 500억 미국 달러	1인당 GDP	3만 4,776 미국 달러
기대수명(남)	81세	기대수명(여)	85세

주: 1) 기대수명(2021년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2022년 기준임

자료: The World Bank(2023), "World Bank Open Data - Italy"; KOTRA(2023), 국가지역정보-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특징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이탈리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탈리아 북동부 트리에스테와 베니스 항구는 자유무역지대로 제품 반입·재수출 등이 자유롭고 관세가 면제된다는 이점이 있으며, 외국 기업이 자국인 근로자를 자국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할 수 있어 큰 인센티브로 작용함
 -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위 두 지역 이외에 제노바와 나폴리에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
 - 역대 인수합병은 대기업 주도하의 전략적 M&A가 주를 이루며, 중국·일본 등 역외국과의 M&A는 유동성이 부족한 이탈리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은 M&A를 통해 기술을 획득하고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가 하락 및 재무구조가 약해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역외분 아니라 역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함
 - 국가안보 및 핵심 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2023년 기준 투자심사에는 최소 45일이 소요됨

³⁾ Istat(2023), "2023 Annual Report: The Station Nation"

2. 경제

- 이탈리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주도의 산업근대화 추진과 전통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950~1960년대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선진 국가로 발돋움함⁴⁾
 - 이탈리아는 과거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했으나 1930년대~1950년대에 국영기업을 설립하면서 철강, 통신, 해운, 항공, 도로 등 기간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산업근대화를 추진함
 - 전통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특화 지역이 발달함에 따라 1950년대 이후 연평균 5.5%의 고도성장을 이룸
 - 중소기업의 발전은 장인정신, 가족 중심의 가내공업 전통 등이 바탕이 되었고, 세계대전 이후 공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함
 -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창설 당시부터 유럽공동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발전에 도움을 받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역내 수출 기회도 확대되었음
 - 1993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출범한 이후 1998년 유럽경제통화동맹(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하 'EMU') 가입, 2002년 유로화 도입 등 EU의 통합·확대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성장을 추구함

〈표 2〉 이탈리아 주요 경제정책 변천

시기	대통령(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1948	엔리코 데 니콜라 (자유당)	1948년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지고 이탈리아 공화국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 헌법 정식 공포 • 내각책임제 채택, 비례대표제 도입
1948~1955	루이지 에디 나우디 (자유당)	고도성장 달성, 혼합경제 체제, 제조업·서비스업 고용률 확대, 북부 지역 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개혁 • 자유무역정책 도입 • 남부 지역 개발법 제정 • 부정선거법 추진 • 헌법재판소 설립
1955~1962	조반니 그론키 (기민당)		
1962~1964	안토니오 세니 (기민당)		
1964~1971	주세페 사라가트 (사민당)		
1971~1978	조반니 레오네 (기민당)	석유 위기,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소비 감소를 위한 통금 시간 도입 • 환율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시도

4) 외교부(2021), 「2021 이탈리아 개황」

〈표 2〉 계속

시기	대통령(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1978~1985	산드로 페르티니 (사회당)	인플레이션 완화, 임금 상승, 1984년 이후 성장 추세 회복	•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 개혁
1985~1992	프란체스코 코시가 (기민당)		
1992~1999	오스카르 루이지 스칼파로 (기민당)	1993년 국제경제 침체와 재정위기, 1995년 성장세 회복하였으나 이후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 민간기업 성과급 제도 도입 • 정부와 노조의 연금제도 개혁 합의 • 유로세 도입 등을 통한 세수입 확대
1999~2006	카를로 아첼리오 참피 (무소속)	유로화가 일상 통화로 통용, 경기침체	• 소득세 축소 • 실업을 낮추기 위한 노동정책 추진 → 2003년 Biagi law에 따라 임시직, Job-sharing, 부수 노동의 세 가지 새로운 계약 형태 도입 • 섬유무역 자유화
2006~2015	조르조 나폴리타노 (민주당/무소속)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국가채무 위기 부각	• 이탈리아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 보호법안 발효 • 개정 노동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ASPI) 신설 •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
2015~2023	세르조 마타렐라 (무소속)	2018년 경제성장세 둔화,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피해 규모 확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 급등,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	• 무보증 담보대출 강화 등 금융분야 중심 으로 기업 지원책 시행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중심의 투자 시행 •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감경, 보조금 정책 시행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이탈리아의 재정제도」; 이탈리아 대사관 홈페이지, 「이탈리아 알기-이탈리아 개관」; KATI(2003), 「이탈리아 국가개황」; KOTRA(2007), 국가지역정보-이탈리아; KOTRA(2023), 국가지역정보-이탈리아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GDP 성장률이 1%대를 유지하며 경제 부진이 심화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정부부채 규모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증가하여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됨⁵⁾

- 1980~1990년 GDP 성장률은 유로 지역 평균 2.4%와 비슷한 수준의 2.3%였으나 이후 2000년까지의 성장률은 1.6%로 하락했고 2002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더욱 감소하여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함
 - GDP의 30%를 차지하는 수출은 2000년 이전까지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이후 국제경쟁력

⁵⁾ 한국은행(2005), 「최근 이탈리아 경제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은행(2012),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의 배경 및 재정건전화·개혁정책」

약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제 부진의 큰 원인으로 나타남

- 특히 이탈리아는 국가부채 규모가 1990년대 초반부터 GDP 대비 100% 수준을 넘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1년 하반기 이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꾸준히 부각되었음
 - 1970년대 초반까지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정도였으나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재분배정책 등이 적절한 개혁 없이 진행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했으며, 1970~198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채무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이어짐
 - 1990년대 중반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120% 후반까지 상승하였다가 EMU 가입 이후 꾸준한 재정 긴축을 시행하며 채무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다시 증가함
 -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 국가채무 감축 및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 및 구조개혁을 추진함
-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9%를 기록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신산업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여 경제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2022년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시 둔화됨
- 2020년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였으며, 유로 지역 내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이동금지와 섯다운으로 특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무보증 담보대출 강화 등 지원책을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발생하며 피해가 더욱 확산됨
 - 2021년 새롭게 구성된 마리오 Дра기 정부는 워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했으며, 코로나 회복 기금을 활용해 녹색산업, 디지털, 보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함
 -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인프라 확충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었고 건설경기로부터 시작된 경제회복세는 점차 다른 분야로 확장됨
 - 그러나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는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함
 -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감경, 보조금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군사적 위기의 장기화와 함께 정치 불안이 높아지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이탈리아의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부여되며, 2005년 보험법(Code of Private Insurance)을 제정하여 기존의 보험 질서를 재정비하고 체계화함
 - 제안된 법안은 해당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후 최종 표결에 부쳐지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 달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공포되어 법률 자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15일째 되는 날 발효됨
 - 1942년 민법 제262호(Civil Code)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들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2005년 보험법을 제정하여 기존 보험 규칙을 정비하고 체계화함
 - 보험법은 이탈리아의 생명 및 손해보험 부문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 보험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피보험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동 법은 이탈리아 기업법과 중개, 재보험, 국제회계기준 규정, Solvency II 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EU 법률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5년에는 보험법을 개정하여 Solvency II를 국내 법률로 전환하였고, 동 법률은 신규 법인에 대한 지급 능력 및 자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규제 당국의 감독 의무, 기업 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과 관련된 규정도 명시하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는 1948년 발효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38조에 따라 연금, 의료, 장애, 사망 및 사고에 관한 국가 사회보장시스템의 기초가 마련됨
 -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독립적인 제도로부터 발전해 왔으며, 국가사회보장공단(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INPS)에서 관리하고 있음
 - 1965년에는 산재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1978년에는 국가의료시스템이 설립되었음
 - 연금제도는 이탈리아 및 EU 법률을 따르며, 1992년까지는 개인연금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년부터 개인연금을 장려하는 규정이 시행됨

- 1995년 Dini 개혁과 이후 노동 개혁 및 안정성법 등을 통해 사회복지 혜택, 정년 및 해고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이탈리아의 공공 의료는 1978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System, 이하 'SSN')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초과 진료나 의약품 및 보완대체요법과 같이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거나 제외되는 경우 사적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 PMI)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음

〈표 3〉 이탈리아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42	• Royal Decree No 262 of 16 March 1942 :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 마련
1948	• Constitution of the Italian Republic : 연금, 의료, 장애, 사망 및 사고에 관한 이탈리아 국가 사회보장시스템의 기초 마련
1965	• Decree Law of 30 June 1965 :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무보험 규정 마련
1978	• Law No 833 of 23 December 1978 : 국민의료보험(SSN)을 도입하여 예방치료, 의료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
1984	• Law no. 576 of 12 August 1982 : 이탈리아 보험감독기관(SVAP) 설립
1995	• Law No 335 of 8 August 1995(Dini reform) : 연금수령 연령을 유연화하고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
1998	• Legislative Decree No 58 of 24 February 1998 : 보험 기반 투자상품(IBIP)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법인을 감독하는 규정 마련
2001	• Legislative Decree No 47 of 18 February 2000 : 보충연금제도의 재정 제도를 개혁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통한 개인연금 지급을 도입
2004	• Law No 243 of 23 August 2004 : 고용주 대차대조표 계정에서 연금 기금으로 퇴직금(TFR)을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005	• Legislative Decree No 209 of 7 September 2005(Code of Private Insurance)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 (재)보험회사 및 중개법인의 설립과 운영,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규제
2011	• Decree Law No 214 of 22 December 2011 : 2012년 1월부터 국가 연금을 확정급여(DB) 방식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환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연금 수령 연령을 점진적으로 인상, 최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변경
2012	• Law No 135 of 7 August 2012 : 2013년 1월부터 기존의 보험감독기관(SVAP)을 대체하여 보험감독원(IVASS) 설립 • Legislative Decree No 158(Balduzzi reform) : 1차 의료를 개편하고 여러 일반의가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Health home'을 구상
2014	• Law No 190 of 23 December 2014(Stability Law 2015)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고용 종료 시점이 아닌 매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표 3〉 계속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islative Decree No 74 of 12 May 2015 : 기존 보험법을 개정하여 2016년부터 Solvency II를 법률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 능력 및 자본 요구 사항을 명시 • Law No 208 of 30 December 2015(Stability Law 2016) :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정규직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islative Decree No 68 of 16 May 2018 : 보험법을 개정하여 EU의 보험 판매 지침(IDD)을 이탈리아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 강화 및 새로운 분쟁해결기구와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 설립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dget law 2019 : 고령자의 퇴직을 장려하고 젊은 층의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퇴직 규정 개정하여 2022년부터 근로자의 나이와 사회보장 기여한 연도 수의 합이 102에 도달하면 퇴직할 수 있도록 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해외 연금제도 개혁 사례 연구」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이탈리아의 보험산업은 1984년 설립된 보험감독기관(Institute for Private Insurance Surveillance, 이하 'ISVAP')이 감독했으나 2013년 1월부터 보험감독원(Institute for Insurance Supervision, 이하 'IVASS')이 이를 대체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금융과 보험 부문의 감독을 조정하여 새로운 감독청을 설립하고자 했으며, IVASS는 ISVAP의 모든 권한을 인수하고 동일한 감독 기능을 수행함
- 보험 기반 투자 상품(IBIP)의 투명성 유지 규정, 해당 상품을 유통하는 은행 및 금융회사의 행동 규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Italian Compan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Consob')가 감독을 맡고 있음
 - 보험 기반 투자 상품은 보험과 투자 요소가 결합되어, 보장을 받는 동시에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액보험, 유배당보험 등이 있음⁶⁾
- 연금 부문의 경우 개방형 연금기금,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과 관련된 사항은 IVASS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보충연금펀드(Spplementary pension funds)는 연금감독청(Pension Funds Supervisory Commission; COVIP)의 결정과 심의를 받게 됨
 - 개방형 연금기금은 추가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기금으로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되며,

⁶⁾ EIOPA(2022), "EIOPA consults on its proposals on Retail Investor Protection"; MFS(2022),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에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개방형으로 가입할 수 있음⁷⁾

- 이탈리아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금융시장과 보험회사의 감독 및 운영에 대해 EU 법률 요건도 함께 준수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유럽 내 감독 체계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이하 'ESFS')이 운영되었으며, 이는 회원국 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SFS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 Risk Board, 이하 'ESRB')와 유럽감독기관(European Space Agency; ESA)의 역할을 하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이하 'EIOPA'),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으로 구성됨
 - EU 내에서 이탈리아의 보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은 ESRB와 EIOPA이며, EU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감독하고 경고 및 권장 사항을 발행함

가. 이탈리아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2015년에는 보험법 개정에 따라 Solvency II가 현지 법률로 전환되었고 보험회사의 기술 및 재무관리, 보험사업자 법률 및 규정 준수, 보험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IVASS와 Consob의 의무를 정의하고 있음
 - IVASS는 보험회사의 기술 및 재무관리, 특히 지급여력 관점에서 대차대조표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대리인 및 (재)보험 중개인을 포함한 보험시장 참여자들의 법률 및 규정 준수를 감독함
 - 보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수행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보험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함
 - 또한 Solvency II의 시행으로 모든 법인은 1년에 한 번 이상 지급 능력 및 재무 상태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공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감독 당국은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함
- 최근 IVASS의 관심 분야는 이탈리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로, 2021년 기획재정부는 IVASS, 중앙은행, Consob과 협력하여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함⁸⁾
 - IVASS는 샌드박스를 통해 인슈어테크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

7) 김수봉 외(2006), 「해외 연금제도 개혁 사례 연구: 연금개혁 과정의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8) IVASS(2024. 2. 16), "Regulatory Sandbox"

된 위험의 확산을 줄이고자 함

-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간소화된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필요한 경우 IVASS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보험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상해 및 헬스케어 부문은 모두 손해보험 업종으로 간주되지만 생명보험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생명보험 업종으로 취급할 수 있음
 - 유럽 법률에 따라 18개의 개별 손해보험 업종, 9개의 생명보험 업종별로 라이선스가 부여되고,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 이탈리아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IVAS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음
 - EU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FOE 원칙에 따라 각국의 감독기관은 이탈리아의 IVASS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FOE(freedom of establishment) 원칙은 EU의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 중 하나로, EU 국가 내에서 기업이 사업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급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회사의 의무 및 지점 구성 방법 등을 포함한 회사 운영 계획서, 법정대리인 선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험회사는 IVASS의 승인을 받고 30일 후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탈리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됨
- 이탈리아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유럽회사 또는 유럽 협동조합으로도 설립 가능함
 - 주식회사는 이탈리아 보험시장에서 영업 중인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법인 형태이며, 법인 설립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통해 이루어짐
- 국내 기업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 2011년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기업 또는 그룹 내에서 겸임이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도입됨

다.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이탈리아의 보험회사는 최소요구자본(MCR)으로 370만 유로를 충족해야 하고 이는 목표요구자본(SCR)의 25% 미만이거나 4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재보험회사는 360만 유로, 캡티브(Captive)⁹⁾ 보험회사는 120만 유로를 충족해야 함

- 이탈리아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의 역내국이므로 지급여력 규제 또한 EU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2016년부터 보험회사의 실제 위험을 반영하는 지급여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Solvency II 규정을 따름
 - 수리적으로 계산된 총당금에 위험 금액의 일부를 더한 비율을 기반으로 지급여력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기존 Solvency I 규정에서 위험 기반 목표요구자본으로 대체되었음
 - Solvency II는 규모 및 사업 분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연간 총 보험료 수입이 540만 유로 이하인 경우, 책임준비금, 재보험 계약 및 특수목적기구(SPV)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의 총합이 2,660만 유로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 및 보증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Solvency II는 1층 양적 감독, 2층 질적 감독, 3층 보고 및 공시제도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에서 자산 및 부채 평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지급 능력 및 최소자본요건 계산을 포함한 정량적 요건을 다루고 있음
 - 보험회사의 파산 확률을 0.5%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해당하는 목표요구자본은 매년 또는 법인의 위험 프로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계산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의 위험 프로필이 표준 공식의 기본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감독 당국은 인수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계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감독 당국의 승인에 따라 목표요구자본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또는 일부 내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

라. 소비자 보호 규제

- 이탈리아에서는 보험법에 소비자 및 (재)보험회사에 대한 보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EU 및 현지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⁹⁾ 캡티브(Captive)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보험회사로, 보다 맞춤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

- 보험계약 당시, 명확하고 포괄적인 계약 조건이 포함된 초안을 작성하고 보장의 예외 사항이나 무효 또는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고객에게 계약 전 정보가 포함된 고지서를 제공해야 함
 - 본국 통제 원칙에 따라 EU 보험회사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불만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 보내야 함
-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IVASS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이나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보험회사의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 IVASS는 보험가입자의 이익 또는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회사가 규정된 지급 능력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IVASS는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할 권한이 있으며, 단기 자금 조달 계획도 요구할 수 있음
 - IVASS는 지급여력 규정을 위반하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신규 거래 금지와 같은 추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에게 지속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실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는 부실 회사의 부채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함
 - 또한 보험회사 운영에 중대한 부정사항이 있거나 입법, 행정 또는 법률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경제개발부는 IVASS의 지시에 따라 특별 또는 임시 관리를 명령할 수 있음
- 2015년 Solvency II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소비자 협회가 보험회사 및 중개인을 상대로 IVASS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탈리아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을 전자 데이터 뱅크에 기록해야 하며, 규제 당국은 이를 3개월마다 검토해야 함
 - 최근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보험 판매 지침(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 IDD)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정 외 분쟁 해결 도구로 ombudsman 및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보험법에 따르면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IVASS의 승인이 필요함
 - EU 또는 유럽경제지역 외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관보에 게재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IVAS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체는 행정명령이 공표된 후에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회사는 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증거, 최소 보증 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채권으로 이탈리아 은행에 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탈리아 내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는 허용되며, EU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이탈리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IVASS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EU에 등록된 회사의 경우 해당 국가 관할 당국의 승인만 받아도 가능함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보험회사는 Solvency II와 선량한 관리자 원칙(Prudent Person Principle; PPP)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보안, 품질, 유동성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히 다각화하여 투자해야 함
 - Solvency II는 보험회사의 투자금을 부채에 더 가깝게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보험 및 재보험 보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해당 보장의 성격과 기간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와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¹⁰⁾

사. 의무보험

- 이탈리아에는 의무적인 생명보험의 종류는 없으나 고용주협회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전국단체교섭협약(National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CNL)에 따라 여러 가지 위험보장이 의무적임
 - 2017년 예산안에 따라 도입된 조기 퇴직 프로그램 중 자발적 퇴직 계획(Voluntary Retirement plan; APE)의 일환으로 퇴직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의무종신보험이 요구되었음

¹⁰⁾ EIOPA(2021. 5. 3), "Prudent Person Principle"

○ 손해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다수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 및 협회는 운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직종에 따라 신체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며, 점차 직업적 책임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이 증가하고 있음

〈표 4〉 이탈리아 주요 의무보험

종류	내용
의무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24 of the Budget Law for 2024 : 이탈리아에 등록된 사무실이나 고정 사업장이 있는 회사는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위험에 대비하여 건물, 공장 및 기계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동 보험은 자산 가치의 최대 15%까지 공제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0~5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공동보험이나 컨소시엄을 통해 보험을 제공할 수 있으나 컨소시엄의 경우 중앙보증금에 등록하고 IVASS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alian law Directive 2021/2118 :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2023년 개정을 통해 차량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만 구동되고 지상에서 주행하며 최대 속도가 시속 25km를 초과하고 최대 설계 속도가 시속 14km를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와 함께 사용되는 트레일러를 포함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2 (3) of legislative decree no. 209/2005 : 이탈리아 영토 및 EEA의 다른 회원국에서 보험 및 재보험 유통 활동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중개인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중개인의 업무상 과실 및 위험 행위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보장해야 함
항만 도선사의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230 of 1 December 2016 : 항해법에 따라 도선사가 자신의 조종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로 인한 민사 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도선사의 민사 책임은 피해자 수나 관련 재난 유형에 관계 없이 사건당 100만 유로로 제한됨
근로자 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yal Decree No 1124 of 30 June 1965 : 급여를 받는 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자원, 공적 기금 등을 통한 복지혜택으로 재원을 충당함
항공사와 항공기 운항사의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No 42/2013 of 16 December 2013 : EU 법률에 따라 EU 내, EU를 출발, 도착 또는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운항사에 대한 최소 보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승객, 수하물, 화물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2014년 4월 30일부터 원격 조종 드론 또한 EU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
EU 폐기물 운송에 대한 재정 보증 또는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EC) 1013/2006 : EU로 수입 또는 수출되거나 EU를 경유하는 모든 폐기물 운송에는 재정 보증 또는 보험이 필요함. 회수 또는 폐기가 불법이거나 의도한 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표 4〉 계속

종류	내용
화물 운송업체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EC) No 1071/2009 : 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는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나 손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보험 가입이 권고됨. 2009년 은행 보증 또는 보험과 같은 증명서를 통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등 화물 운송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1969년 유류오염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CLC 협약)에 따라 선박에 2,000톤 이상의 기름을 운송하는 경우 한 번의 기름 유출에 대한 최대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담보를 유지해야 함
사상꾼 민사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12 of Law No 157 of 11 February 1992 : 사상꾼의 수렵 활동 중 제3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함. 2021년에는 최소 보상 한도금액을 인상하여 청구 건당 90만 3,282유로이며, 신체 상해의 경우 67만 7,462유로, 재산 피해의 경우 22만 5,820유로로 규정하고 있음
자원봉사자를 위한 개인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islative Decree No 117 of 3 July 2017 : 이탈리아 내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개인상해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철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Directive 2012/34/EC : EU 지침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승객, 물품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함.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연간 최소 보상 한도금액이 1억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IVASS(2021),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Policy"를 기초로 작성함

III

보험시장 현황

1. 전체 보험시장 현황¹⁾

- Swiss Re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험시장은 2022년 세계 보험시장의 2.4%를 차지하며 세계 9위의 보험 시장 규모를 기록함
 - 2022년 세계 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6조 7,822억 미국 달러이며, 이탈리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1,602억 미국 달러로, 유럽 선진시장에서 영국(3위), 프랑스(5위), 독일(6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2022년 이탈리아 생명보험시장은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4.1%를 차지하여 6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은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1.1%를 차지하여 11위의 규모를 기록하였음
- 2022년 기준 이탈리아의 보험침투도는 8.0%이며, 보험밀도는 2,716 미국 달러로, 유럽 선진시장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이탈리아 보험침투도는 유럽 선진시장에서 네덜란드(8.5%)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밀도는 벨기에(2,756 미국 달러)와 유사하며, 유럽 선진시장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각각 5.8%와 2.2%이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밀도는 각각 1,966 미국 달러, 750 미국 달러임

11) 이탈리아 보험시장을 세계 보험시장과 비교할 때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자료는 서로 상이함. 본문 1) 전체 보험시장 현황은 세계 보험시장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비교로 FOE(freedom of Establishment) 원칙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국내 보험회사가 EU 지역에 지점을 두고 보험서비스를 제공(Freedom of Services; FOS)함으로써 발생한 수치를 포함함. 본문 2) 생명보험시장 현황, 3) 손해보험시장 현황에서는 이탈리아 국내 보험회사가 FOS 제공으로 벌어들인 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함

〈표 5〉 유럽 선진시장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시장규모 (백만 미국 달러)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미국 달러)
영국	3	5.4	363,009	10.5	4,781
프랑스	5	3.9	261,254	8.7	3,578
독일	6	3.6	241,633	5.9	2,881
이탈리아	9	2.4	160,168	8.0	2,716
네덜란드	12	1.2	83,875	8.5	4,731
스페인	16	1.0	68,237	4.9	1,433
스위스	17	0.8	56,082	6.9	6,364
스웨덴	18	0.8	54,363	9.3	5,180
덴마크	21	0.6	43,204	10.9	7,320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3), "World insurance", sigma 3/2023

○ 이탈리아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비중이 각각 72.4%, 27.6%로 생명보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생명보험업 수입보험료는 2014년 크게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전체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함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 확대된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의 성장에 기인함¹²⁾
- 이탈리아 손해보험업 수입보험료는 2014년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산업 대비 비중은 2013년 30.1%에서 2022년 27.6%로 하락함

〈표 6〉 이탈리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3	2014	2015	2020	2021	2022
보험료	생명보험	88,902 (69.9)	109,323 (74.6)	114,951 (76.0)	113,312 (74.9)	122,703 (75.7)	110,055 (72.4)
	손해보험	38,245 (30.1)	37,203 (25.4)	36,219 (24.0)	37,988 (25.1)	39,474 (24.3)	41,985 (27.6)
	전체	127,147	146,526	151,170	151,299	162,177	152,041
보험료 성장률		13.3	15.2	3.2	-4.9	7.2	-6.3

주: 1) ()안은 구성비임
 2) 보험료 성장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¹²⁾ Assicurazioni(2015. 2. 16), "Assicurazioni vita: numeri record nel 2014"

- 2022년 말 현재 이탈리아에는 186개의 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51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을, 108개 보험회사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¹³⁾
 -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21개이며, FOE(Freedom of Establishment)¹⁴⁾ 원칙을 기반으로 허가된 6개의 보험회사가 있음
 - 186개 회사 중 89개가 이탈리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93개는 EU 국가의 외국 보험회사 지점이고, 4개 사는 EU 외 국가의 보험회사임

- 이탈리아 보험산업에서 외국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 모두 40% 이상임
 - 2021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이탈리아 생명보험업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2%로 2017년 38%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업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43% 전후로 유지되고 있음
 -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 모두 외국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대부분 변액상품(Unit-linked product)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IVASS가 처리한 보험산업 전체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22년 전년 대비 22.2%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책임보험 관련 건수가 전체 불만의 62%를 차지함
 - 2022년에는 24,601건의 소비자 불만이 처리되었으며, 2021년 20,136건에 비해 22.2% 증가함
 - 자동차책임보험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약 3,200건 증가한 15,314건이 처리되었으며, 주로 보험금 지급 방식과 시기에 관한 불만임
 - 자동차 이외의 손해보험 불만 처리 건수는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며(-21.9%),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 조건이 너무 복잡하거나 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주요 불만 사유임
 - 생명보험업은 전체 불만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만 사항은 계약 체결 단계와 혜택 지급(해약금, 만기 혜택, 보험금)과 관련이 있음

¹³⁾ key4biz(2023. 8. 31), "Compagnie assicurative, il crollo dei profitti è del 65%"(<https://www.key4biz.it/compagnie-assicurative-il-crollo-dei-profitti-e-del-65/457668/>)

¹⁴⁾ 각주 8 참조바람

〈표 7〉 이탈리아 보험산업 소비자 불만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동차 책임보험	10,965 (59.8)	9,306 (57.1)	10,444 (55.2)	12,109 (60.1)	15,314 (62.2)
그 외 손해보험	5,083 (27.7)	4,923 (30.2)	5,983 (31.6)	5,677 (28.2)	6,920 (28.1)
손해보험 합계	16,048 (87.5)	14,229 (87.3)	16,427 (86.8)	17,786 (88.3)	22,234 (90.4)
생명보험	2,284 (12.5)	2,065 (12.7)	2,492 (13.2)	2,350 (11.7)	2,367 (9.6)
보험산업 합계	18,332 (100)	16,294 (100)	18,919 (100)	20,136 (100)	24,601 (100)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2. 생명보험시장 현황¹⁵⁾

○ 2022년 기준 이탈리아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943억 유로이며, 전년 대비 11.0% 감소함

- 2022년 생명보험시장 순보험료는 보험료 감소와 보험금 및 비용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49% 축소됨
 - 수입보험료 감소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변액보험 보험료 감소가 주된 원인임
 - 반면 2021년 생명보험시장의 보험료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반영하여 변액보험 보험료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에 힘입어 같은 기간 4.5% 성장하였음

15) 이탈리아 생명보험시장 현황은 이탈리아 국내 보험회사와 이탈리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FOE 원칙에 의해 이탈리아 국내 보험회사가 FOS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등은 제외하며, 재보험회사 관련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등도 제외함. 이에 따른 업권별 수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음

〈표〉 이탈리아 보험산업 업권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3	2014	2015	2020	2021	2022
생명보험업	85,100(71.6)	110,518(77.1)	114,947(78.2)	101,329(75.1)	105,887(75.6)	94,272(72.5)
손해보험업	33,687(28.4)	32,800(22.9)	32,002(21.8)	33,517(24.9)	34,145(24.4)	35,676(27.5)
전체	118,787	143,318	146,949	134,846	140,032	129,948

주: 1) ()안은 구성비임

2) 이탈리아 국내 보험회사가 EU 지역에 지점을 두고 보험서비스를 제공(freedom of services; FOS)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보험료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문 〈표 6〉보다는 수입보험료가 적음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 투자 이익도 변액보험 연계 투자에서 손실을 기록하면서 2022년에 89억 유로로 전년 대비 44% 감소함
-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9,836억 유로이며,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세후 약 4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함
- 2022년 Solvency II 비율은 203.3%로 전년 대비 25.3%p 감소함

〈표 8〉 이탈리아 생명보험 순보험료, 투자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등 변화 추이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보험료	금액	102,048	106,012	101,329	105,887	94,272
보험금 및 비용	금액	73,223	76,158	76,446	75,630	78,798
순보험료	금액	28,825	29,854	24,882	30,257	15,474
	성장률	5.0	3.6	-16.7	21.6	-48.9
투자이익	금액	13,762	19,550	16,080	15,933	8,920
	성장률	-17.5	42.1	-17.7	-0.9	-44.0
당기순이익	금액	1,983	5,978	4,733	4,335	-399
총자산	금액	867,907	926,658	966,823	1,022,853	983,600
	성장률	2.3	6.8	4.3	5.9	-3.8
ROE		5.3	14.5	10.9	9.9	-1.0
Solvency II 비율		186.6	219.0	222.7	229.3	203.3
실질 GDP 성장률		0.9	0.5	-9.0	7.0	3.7

자료: AXCO(2024),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IMF(<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rofile/ITA>)

○ 종목별 수입보험료를 살펴보면 종신보험 등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음¹⁶⁾

- 2022년 개인보험은 896억 유로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보험 중 종신보험 등(Class I)의 비중은 64.3%이며, 변액보험(Class III)은 30.7%임
 -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은 유럽 법률에 따라 전통적인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나뉨
 - Class I은 양로보험, 종신 및 정기보험을 포함한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임
 - Class III는 변액보험상품, Class IV는 장기요양과 장기장애보험(Long-term Disability Insurance; LTD) 및 소득·실업 보장 상품, Class V는 순수 투자상품으로 사망보장은 없는 자본화된 상품, 그리고 Class VI는 연금보험상품으로 투자형 상품에 속함

¹⁶⁾ IVASS(2023. 12. 4), "Life business performance: premium income and commercial offer"

- 연금보험(Class VI)은 32억 유로(3.4%), 자본화된 상품(Class V) 등을 포함한 기타는 15억 유로로 1.6%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대비 2022년 전통형 상품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약간 줄어든 반면, 투자형 상품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증가함

〈표 9〉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EU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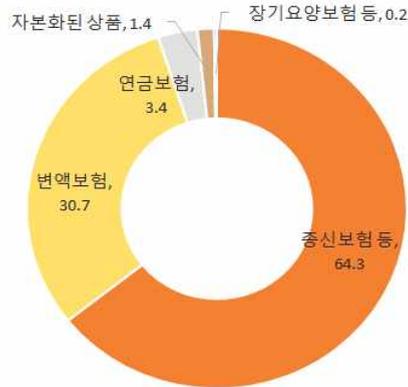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인	종신보험 등 (Class I)	금액	66,204	72,637	65,716	62,294	60,649
		비중	64.9	68.5	64.9	58.8	64.3
	변액보험 (Class II)	금액	29,838	27,882	29,609	39,811	28,910
		비중	29.2	26.3	29.2	37.6	30.7
	소계	금액	96,042	100,519	95,326	102,104	89,559
		비중	94.1	94.8	94.1	96.4	95.0
단체	연금보험 (Class VI)	금액	2,091	2,791	3,885	2,378	3,172
		비중	2.0	2.6	3.8	2.2	3.4
기타	자본화된 상품 (Class V)	금액	3,806	2,552	1,937	1,227	1,318
		비중	3.7	2.4	1.9	1.2	1.4
	장기요양 등 (Class IV)	금액	109	149	182	178	222
		비중	0.1	0.1	0.2	0.2	0.2
	소계	금액	3,915	2,701	2,119	1,405	1,541
		비중	3.8	2.5	2.1	1.3	1.6
전체 ¹⁾	전통형 상품	금액	66,204	72,637	65,716	62,294	60,649
		비중	64.9	68.5	64.9	58.8	64.3
	투자형 상품	금액	35,844	33,374	35,613	43,594	33,623
		비중	35.1	31.5	35.1	41.2	35.7
합계	금액	102,048	106,012	101,329	105,887	94,27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개인, 단체, 기타의 수입보험료 합을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함

자료: AXCO(2024),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 l'Istituto nell'anno 2022"

〈그림 1〉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 최근 종목별 수입보험료 중에서 하이브리드 상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보험은 투자를 이원화하여 일부는 보험회사의 계정과 분리된 펀드(Segregated fund)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변액 펀드(Unit fund)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추구함
- 종신보험 등을 포함한 class I 과 변액보험에서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진 보험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수입보험료 중 3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47%로 증가함

○ 이탈리아 생명보험시장에는 2022년 기준 51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¹⁷⁾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50%임

- 2022년 말 이탈리아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28개 사, 외국보험회사는 23개 사가 영업을 하고 있음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Post Vita, Intesa Sanpaolo Vita, Generali Italia, Alleanza Assicurazioni, Unicredit Allianz Vita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8.2%, 10.7%, 9.1%, 6.5%, 4.9%임
 - 이탈리아 1위 생명보험회사인 Post Vita는 이탈리아 우체국 소유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상품을 저마진, 대량 판매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우체국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로 접근성을 높임

¹⁷⁾ Statista(2024), "Number of life insurance companies operating in Italy from 2003 to 2022"

〈표 10〉 이탈리아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EUR, %)

순위	회사명	2022년		2021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Poste Vita S.P.A.	17,179	18.2	17,574	16.9	-2.3
2	Intesa Sanpaolo Vita S.P.A.	10,100	10.7	8,910	8.6	13.4
3	Generali Italia S.P.A.	8,606	9.1	8,869	8.5	-3.0
4	Alleanza Assicurazioni S.P.A.	6,159	6.5	6,356	6.1	-3.1
5	Unicredit Allianz Vita	4,654	4.9	5,413	5.2	-14.0
6	Mediolanum Vita S.P.A.	4,293	4.6	6,180	6.0	-30.5
7	Credit Agricole Vita S.P.A.	3,535	3.7	4,154	4.0	-14.9
8	BNP Paribas Cardif Vita Compagnia Di Assicurazione E Riassicurazione S.P.A.	3,431	3.6	4,611	4.4	-25.6
9	Unipolsai Assicurazioni S.P.A.	3,392	3.6	2,869	2.8	18.2
10	Fideuram Vita S.P.A.	3,272	3.5	4,471	4.3	-26.8
합계		94,272	100.0	103,787	100.0	-9.2

자료: AXCO(2024),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이탈리아 생명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리점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5년 방카슈랑스 채널은 63.1%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여, 2022년 57%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점유율이 높음
 - 이탈리아의 방카슈랑스 채널 데이터에는 이탈리아 우체국이 소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1위 생명보험회사인 Poste Vita의 보험료도 포함됨
- 대리점 채널은 2013년 23%에서 2022년 26.1% 증가하였으며, 금융 컨설턴트¹⁸⁾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7%에서 15%로 1.7%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과 대리점 채널은 전통형 상품에 기반을 둔 혼합형 상품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금융 컨설턴트는 투자형 상품에 집중된 혼합형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음¹⁹⁾

¹⁸⁾ 이탈리아의 금융중개법안(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in materia di intermediazione finanziaria) 제31조에 의하면, 금융 프로모터(Promotori finanziari)는 단일 중개 금융인(은행 등)을 대표하여 재무 상품 및 투자 서비스의 현장 외 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됨. 2015년 12월 28일 제208호 법률의 제1조 39항에 따르면, 금융 프로모터는 현장 외 제공을 위해 인가된 금융 컨설턴트로 대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wikipedia 참조)

¹⁹⁾ pwc(2018), "The Italian Insurance Market"

〈표 11〉 이탈리아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¹⁾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카슈랑스	59.1	62.0	63.1	62.3	61.0	60.8	60.7	59.0	55.4	56.9
대리점	23.0	20.2	19.8	22.1	22.4	22.8	23.8	25.0	24.3	26.1
금융 컨설턴트 ²⁾	16.7	16.8	16.3	14.4	15.3	14.3	13.6	13.9	18.0	15.0
기타	1.2	1.0	0.8	1.2	1.3	2.2	1.9	2.1	2.3	2.0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금융 컨설턴트는 금융 프로모터임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 이탈리아 생명보험업의 자산운용은 채권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연기금을 포함한 변액보험의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 이탈리아 생명보험업의 자산운용은 일반계정 성격의 Class C와 특별계정 성격의 Class D로 나뉘며,²⁰⁾ 2022년 Class C는 전체 운용자산의 74.6%를, Class D는 25.4%를 차지함
- 2022년 Class C의 자산운용 구성비는 채권(58.2%)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뮤추얼펀드 및 개방형 펀드(11.8%), 주식(3.9%)이며, 채권 중에서도 국채 투자의 비중이 높음
- 2022년 Class D의 자산운용 구성비는 투자신탁 및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Class D I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12〉 이탈리아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Class C (일반계정)	부동산	금액	561	591	613	624	607
		구성비	0.1	0.1	0.1	0.1	0.1
	주식	금액	30,317	31,338	30,626	31,217	31,580
		구성비	4.2	4.1	3.8	3.6	3.9
	채권	금액	446,332	465,344	480,220	487,610	474,307
		구성비	62.5	60.4	59.4	56.9	58.2
	국채	금액	315,520	329,347	339,952	342,763	334,019
		구성비	44.2	42.7	42.0	40.0	41.0
	뮤추얼펀드 및 개방형 펀드	금액	75,231	87,511	95,554	99,270	95,955
		구성비	10.5	11.4	11.8	11.6	11.8

²⁰⁾ pwc(2018), "The Italian Insurance Market"

〈표 12〉 계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Class C (일반계정)	기타	금액	8,983	6,504	6,125	5,619	4,858
		구성비	1.3	0.8	0.8	0.7	0.6
	소계	금액	561,424	591,288	612,526	624,340	607,307
		구성비	78.7	76.7	75.7	72.8	74.6
Class D ¹⁾ (특별계정)	Class D I 투자 ²⁾	금액	136,113	160,755	176,837	211,486	186,212
		구성비	19.1	20.9	21.9	24.7	22.9
	Class D II 투자 ³⁾	금액	16,139	18,659	19,649	21,428	20,920
		구성비	2.3	2.4	2.4	2.5	2.6
	소계	금액	152,252	179,414	196,486	232,914	207,132
		구성비	21.3	23.3	24.3	27.2	25.4
합계	금액	713,676	770,702	809,012	857,254	814,43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Class D는 연기금을 포함한 변액상품 투자(Linked contracts including pension funds)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또는 다른 금융시장과 연계되어 있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되는 특별계정 성격임

2) 투자신탁(Investment funds) 및 시장 지수에 투자함. 투자신탁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투자함

3) 연기금 관리에서 파생되는 투자임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pwc(2018), "The Italian Insurance Market"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2년 기준 이탈리아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357억 유로이며, 전년 대비 4.5%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보임

- 2022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4.5%)은 실질 GDP 성장률(3.7%)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ROE(자기자본이익률)는 8.1%를 기록함
- 2022년 Solvency II 비율은 220.0%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함

〈표 13〉 이탈리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기술적 준비금, 당기순이익 등 변화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보험료	건강보험	금액	6,584	7,100	6,976	7,280	7,879
	그 외 손해보험	금액	26,512	27,184	6,541	26,865	27,797
	합계	금액	33,096	34,285	33,517	34,146	35,676
		성장률	2.5	3.6	-2.2	1.9	4.5
기술적 준비금 ²⁾	금액	58,872	58,781	58,643	62,536	-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	177.9	171.5	175.0	183.2	-	
당기순이익	금액	2,183	2,652	3,851	2,357	2,684	
ROE		7.8	9.2	12.4	7.1	8.1	
Solvency II 비율		187.6	196.8	225.7	217.6	220.0	
실질 GDP 성장률		0.9	0.5	-9.0	7.0	3.7	

주: 1) 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원수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수입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2) 2017년까지 총자산이 집계되었으나, 2018년부터 기술적 준비금(Technical Reserves)으로 집계되기 시작함, 2022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음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 종목별 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물보험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높음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종목별 비중은 자동차보험(42.6%)이 가장 높고, 재물보험(20.1%), 건강보험(19.5%), 배상책임보험(10.5%) 순임
- 2018년 대비 2022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감소하였으며, 그 외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요율이 인하되면서 손해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9.6%에서 2020년 42.6%로 감소함
 - 재물 및 건강보험의 비중은 2022년 39.6%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는데, 건강보험은 단체 보험의 질병 보험료가 2021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재물보험은 화재보험과 우박 등을 보장하는 기타 재물보험이 각각 8.3%, 6.2% 증가함
 - 2022년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이탈리아 정부가 시행한 Superbonus 110%²¹⁾와 팬데믹 이후 산업의 회복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법률 보호 및 지원 보험은 관광 산업 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보험과 보증보험도 경제활동의 회복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1%, 7.7% 증가함

21) Superbonus는 이탈리아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한 재정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할 때 개선 작업에 사용된 비용의 110%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표 14〉 이탈리아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강보험	금액	5,858	6,300	6,159	6,417	6,957	
	비중	17.7	18.4	18.4	18.8	19.5	
자동차보험 ¹⁾	책임보험	금액	13,220	13,211	12,457	11,892	11,628
		비중*	81.7	81.0	79.9	78.1	75.7
	기타	금액	2,999	3,145	3,176	3,381	3,579
		비중*	18.3	19.0	20.1	21.9	23.3
	소계	금액	16,219	16,356	15,633	15,273	15,207
		비중	49.0	47.7	46.6	44.7	42.6
운송보험	금액	406	418	429	451	513	
	비중	1.2	1.2	1.3	1.3	1.4	
재물보험	금액	6,018	6,288	6,236	6,617	7,176	
	비중	18.2	18.3	18.6	19.4	20.1	
일반배상책임보험	금액	3,021	3,201	3,277	3,466	3,751	
	비중	9.1	9.3	9.8	10.2	10.5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금액	467	500	515	574	634	
	비중	1.4	1.5	1.5	1.7	1.8	
법률보호 및 지원보험	금액	1,107	1,223	1,266	1,347	1,438	
	비중	3.4	3.6	3.8	3.9	4.0	
합계	금액	33,097	34,285	33,517	34,146	35,677	
	비중	100	100	100	100	100	

주: 1)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비중* 및 기타 비중*은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 손해보험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의무보험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임

-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9.2%에서 2022년 43.2%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40% 이상임
 - 의무보험에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해상운송 배상책임보험, 항공기 배상책임보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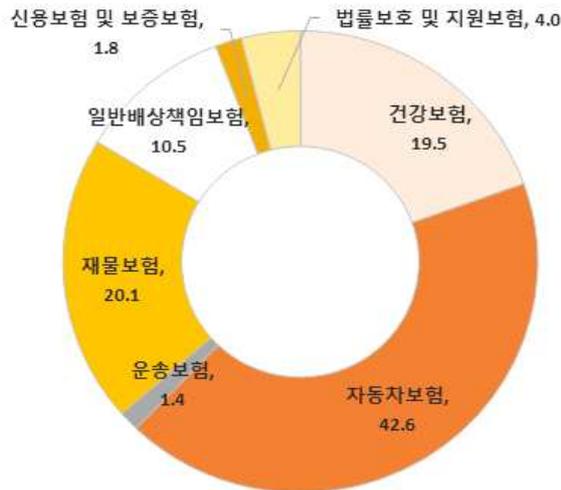
〈그림 2〉 이탈리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의 추이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그림 3〉 이탈리아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 이탈리아 손해보험시장은 UnipolSai, Generali, Allianz SE와 같은 대형 그룹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5년 동안 50%를 상회하고 있음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Unipolsai Assicurazioni S.P.A.(19.3%), Generali Italia Assicurazioni S.P.A.(15.0%), Allianz S.P.A.(10.2%), AXA Assicurazioni S.P.A(5.2%), Societa Reale Mutua Di Assicurazioni(4.8%) 등 대형그룹사가 각각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 사 점유율은 약 55%임

- 2022년 Generali Assicurazioni S.P.A.는 시장점유율 6위 회사인 Societa Cattolica Di Assicurazione (4.8%)를 인수하였음²²⁾
- 국영 우체국 소유인 손해보험회사 Poste Italiane는 1.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20위), 생명보험회사 Poste Vita와 달리 시장지배력이 낮음

〈표 15〉 이탈리아 손해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EUR, %)

순위	회사명	2022		2021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Unipolsai Assicurazioni S.P.A.	6,883	19.3	6,721	19.8	2.4
2	Generali Italia Assicurazioni S.P.A.	5,361	15.0	5,124	15.1	4.6
3	Allianz S.P.A.	3,652	10.2	3,573	10.6	2.2
4	AXA Assicurazioni S.P.A	1,843	5.2	1,715	5.1	7.5
5	Societa Reale Mutua Di Assicurazioni	1,721	4.8	1,599	4.7	7.6
6	Societa Cattolica Di Assicurazione	1,694	4.8	1,690	5.0	0.3
7	Vittoria Assicurazioni S.P.A.	1,325	3.7	1,263	3.7	4.9
8	Groupama Assicurazioni S.P.A.	933	2.6	938	2.8	-0.6
9	Intesa Sanpaolo Assicura S.P.A.	915	2.6	767	2.3	19.2
10	Italiana Assicurazioni S.P.A.	812	2.3	789	2.3	3.0
	합계	35,677	100.0	33,865	100.0	5.4

주: S.P.A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회사를 의미함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비중은 전통적인 채널인 대리점 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요 채널이며, 금융 컨설턴트 채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대리점 채널 비중은 2013년 83.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76.7%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손해보험업의 주요 채널임
 - 같은 기간 중개인 채널은 7.6%에서 9.7%로 증가하였으며, 금융 컨설턴트도 3.7%에서 2022년 9.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직접 판매채널은 2013년 5.5%에서 2022년 4.6%로 감소함

²²⁾ Generali 홈페이지(<https://www.generali.com>)

〈표 16〉 이탈리아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¹⁾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리점	83.2	81.7	81.1	79.9	78.9	78.1	77.3	77.7	77.6	76.7
중개인(브로커)	7.6	8.5	8.2	9.2	9.4	9.6	9.2	9.6	9.2	9.7
직접판매 ²⁾	5.5	5.7	5.8	5.3	5.2	5.7	5.7	5.4	4.8	4.6
금융 컨설턴트	3.7	4.1	4.9	5.7	6.4	6.7	7.9	7.2	8.3	9.0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함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 이탈리아 손해보험업 자산운용은 채권과 주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자산운용은 채권이 4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38.9%), 뮤추얼 펀드 및 개방형 펀드(9.3%), 부동산(4.6%) 순임
 - 국채는 전체 운용자산 중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 내 구성비는 약 56%임
- 2018년 이후로 손해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를 볼 때 채권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주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표 17〉 이탈리아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부동산	금액	5,114	5,315	4,385	4,376	4,208
	구성비	6.0	6.2	5.0	4.8	4.6
주식	금액	30,772	30,004	30,519	33,730	35,585
	구성비	36.1	35.0	34.8	37.0	38.9
채권	금액	38,614	37,977	38,938	38,926	37,964
	구성비	45.3	44.3	44.4	42.7	41.5
국채	금액	21,055	20,660	19,995	20,055	21,223
	구성비	24.7	24.1	22.8	22.0	23.2
뮤추얼 펀드 및 개방형 펀드	금액	7,842	9,344	10,436	9,572	8,508
	구성비	9.2	10.9	11.9	10.5	9.3
기타	금액	3.5	3.5	3.8	5.0	5.7
	구성비	0.7	0.6	0.5	0.6	0.4
합계	금액	85,241	85,726	87,699	91,161	91,47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각 운용자산별 금액은 구성비를 토대로 저자가 산출함

자료: IVASS(2023. 6. 19), "Relazione sull'attività svolta dall'Istituto nell'anno 2022"

IV

시사점

- 이탈리아는 관광 산업 발달로 인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신산업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여 경제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2022년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시 둔화됨
 -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8위 국가로 풍부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하여 유럽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꼽힘
 -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9%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녹색산업, 디지털, 보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함
 - 그러나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보조금 정책 등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군사적 위기의 장기화와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최근 IVASS는 이탈리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함
 - 2021년 이탈리아 기획재정부는 IVASS, 중앙은행, Consob과 협력하여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함
 - IVASS는 인슈어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방안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자 하며, 사업자는 간소화된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IVASS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이탈리아 보험산업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9위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²³⁾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최근 하이브리드 보험상품이 성장하고 있으며, 보험침투도가 낮은 손해보험산업이 유럽 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²⁴⁾
 - 이탈리아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EU 이외의 국가에 본사가 있는 경우 지점만 설립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으며, IVASS는 승인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였음
 - 생명보험산업은 투자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상품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손해보험산업은 최근 자동차 책임보험 요율의 높은 인상과 2024년부터 기업들이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²³⁾ IVASS 홈페이지(<https://www.ivass.it/operatori/imprese/operare/index.html?com.dotmarketing.htmlpage.language=3>)

²⁴⁾ Fitchratings(2024. 1. 8), "UK, Italian Non-Life Insurers Have the Best Prospects in Europe"

■ 저자약력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김가현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gahyun637@kiri.or.kr